

금융권 청년 일자리 간담회

# 모두 발언

2023. 2. 20.(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금융권 청년 일자리 관련 논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각 금융협회 및 주요 은행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해진

사회·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는

고용시장 축소, 취업준비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이어져

청년의 자립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 대학졸업(3년제이하 포함) 소요 평균기간 :

(‘18) 4년 4.9개월 → (‘22) 4년 6.2개월(+1.3개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미국의 고강도 긴축 등

대외경제 여건의 지속된 악화로

올해에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만명) :

(‘21년)+11.5 → (‘22년)+11.9 → (‘23.1월)△5.1

## [ 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선의 목표로 삼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일자리 전담반 운영\*을 바탕으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강화\*\*,  
공공부문 청년인턴 채용 확대\*\*\* 등  
여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고용 관련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의 및 고용시장 지속 점검

\*\*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업무유형별로 일경험을 확대('22년 예산 50억원→'23년 예산 535억원)

\*\*\* '22년 2.2만명 → '23년 3.5만명

금융당국도 금융산업의 외연 확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인  
금융권 청년 일자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의 업무범위와 투자 관련 제한을 합리화하고,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과 같은  
디지털 금융혁신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등  
금융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추진,  
금융권 디지털금융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금융新부문 인력양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미래유망분야(AI, 빅데이터 등)에서 100만명 규모 디지털 인재 양성('22~'26)

\*\* 핀테크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3. 금융권에 대한 당부]

금융권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전통적인 영역의 인력수요 감소와 금융IT 등 새로운 부문에 대한 인력수요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① 먼저, 금융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보안,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관련 인력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경우 신뢰 하락 등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문의 인력 확충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 ② 아울러, 빅블러 현상으로

금융-비금융 영역이 흐릿해지는 상황에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클라우드 등 금융新부문 관련 양질의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SW중심대학, 마이스터대, ICT특성화고의 디지털 인재 등

③ 동시에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디지털약자, 소외계층 등이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금융채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④ 금융권 채용정보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채용시기와 인원에 대한 투명한 안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참여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구직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금융권의 실물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역시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창업,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 제공으로  
실물과 금융간 선순환 구축에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4. 마무리 말씀]

美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기업 운영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이익을  
고려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美 주요기업(US GDP의 24% 차지)의 CEO들이 구성된 연합

\*\*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2019) :

"we share a fundamental commitment to all of our stakeholders ...  
we commit to supporting the communities in which we work."

우리 금융권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당국도  
청년 일자리 관련  
금융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